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혜준

<달—언니에게>

이 밤을 한 통의 편지라고 한다면
수신인은 해가지지 않는 마을에 있을 것이다

창가에 붙어 앉아 편지를 쓰는 시간
그만 잉크를 쏟아버려
하늘은 온통 밤이 되었고
화단에 심어놓은 달맞이꽃만 환하다
눈물 닿은 자리에는
별빛 얼룩이 생기고
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옥상 구석에 빨랫줄을 걸어두었다
틀린 글씨는 구름으로 지워야 하니
편지지 위로
얼마간의 그리움이 부서져 내린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뒤 돌아볼 때마다
한 뺨씩 가까워지던 골목과
새끼손가락을 걸고서도
환한 언니 얼굴이 생각날 것 같은데
이제 내게 웃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라 부르는
목소리가 없는 마을이 있다면
언니는 지금 그곳에 있을까
밀어주는 사람 없는 그네에 앉아서

수신인도 발신인도 적혀있지 않은 편지
나는 밤을 접어
오른쪽 구석에 우표를 붙여주었다

만월이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최우수상 - 강원도지사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꿈의학교 고등과정 2학년 김보민

<달달 무슨 달, 달이 같이 예쁜달, 어디어디 떴나?>

하늘에 뜨는 달은 아름답다. 세상에 수많은 네온사인과 인공적 빛에 별들은 숨어버렸지만 달만큼은 밤하늘에 비스듬히 걸려있다. 세상의 빛 따위 조금도 무섭지 않다며 그저 그 자리에 걸려있다. 우리 집 달덩어리도 그렇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녁만 되면 귀신 같이 일어나 바깥을 바라본다. 고개를 내리고 몸은 비스듬히 책상에 걸친 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렇게 누워있다. 이름은 달이, 이제 막 한 살이 된 우리 집 고양이이다.

일단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설명해야할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름은 달이이다. 나이는 이제 막 한 살 여자이고 색깔은 주황... 아니 노랑... 애매하다. 눈 색도 애매한데 눈에 별별 색깔이 다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한 주황빛 도는 갈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초록빛이 돈다. 더 자세히 보면 회색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자세히 보려면 손이 반쯤 상처투성이가 된다. 분명 암전한 고양이이거늘 이상하게 차가운 구석이 있다. (아니 고양이는 원래 다 그런 건가?) 낮에는 아무리 놀아줘도 정신이 반쯤 나가서 잔다. 아주 낮이 나가서 낮에는 잘도 잔다. 하지만 저녁은 다르다 달이의 활동시간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이다. 그 시간에는 화장실도 치워주고, 밥도 새로 주고, 물도 충분한데도 시끄럽게 운다. 장난감을 던져줘도 흥미가 없다는 듯 그저 울기만 한다. 목적 그 의미도 없이 계속 울다가 나랑 엄마랑 계속 무시하면 결국은 멈춘다.

그냥 좀 말이 많은 덩치 작고 바깥이 무서운 소심한 보통 고양이이다.

나와 엄마는 그 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 엄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한다. 나는 그냥 이런 게 엄마마음이라 부르는 마음이겠거니... 한다. 여하튼 내가 달이를 아주 좋아한다. 달이는 내가 달이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까? 아마 모르는 것 같다. 껴앉으면 도망가고 쓰다듬으면 도망가고 뽀뽀하면 도망가고 도대체 왜 그렇게 언니를 싫어하니? 언니가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놀아도 주는데 도대체 왜애애!! 하고 갱단을 부리면 질색하고 침대 밑으로 속 들어가 버린다.

‘치사한 놈...’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도저히 미워 할 수가 없다.

엄마는 달이를 위한 주제가 까지 만들었다.

“달 달 무슨 달, 달이 같이 예쁜 달, 어디어디 떴나 엄마 달에 떴지!”

노래를 부르며 달이를 붙잡고 온몸을 덩실덩실 흔드는 엄마를 보면 내가 다 창피하다. 음, 난 저렇게 까지는 못 사랑하겠다. 닭살 돌아, 달이 표정도 그만해라넹넹. ‘이란 표정이다. 음, 난 저러지 말아야지.’

달이는 이런 집안으로 입양을 오고 일 년을 살았다. 그냥 이 환경이 익숙한지 달관해 버린 달이 표정을 보면 애늬은이 같기도 해서 웃음이 다 나온다.

그러나 딱하나 달이가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와 엄마의 외출이다. 엄마가 회사에 가야해서 문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면 현관문 앞에 일자로 누운 달이는 자신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만의 소심한 시위를 시작한다. 달이는 비장하게 ‘갈 거면 날 뺏고 가라’ 라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본다. 결국은 비장한 달이를 넘어가기에 달이의 시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의도치 않게 외출을 할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잠깐만, 지금은 나가는 시간이 아니잖아, 어디 가는 건데?’ 라는 듯 쳐다본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달이는 바깥에 관심이 생겼나보다. 낮은 줄리니 무리이고 활동시간이 밤, 달이는 캣타워 꼭대기나 책상에 올라가 밖을 바라본다. 동물도 상상을 할 수 있다면 달이는 창밖을 보며 자신이 밤거리를 확보하는 상상을 할 것이다. 아니면 엄마랑 같이 출근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엄마한테 달이가 그런 상상을 하는 중 일수도 있다. 고 말해 놓고 우리 둘 다 웃은 적도 있었다. 달이는 그 웃음소리에 놀란 것 같았지만 말이다.

달이가 집에 오고 많은 것이 변했다. 적막함이 사라지고 달이의 행동하나하나에 웃어버리는 왁자지껄한 집이 되었다. 달이가 물건 몇 개를 부숴도 화나기보다는 혹시 달이가 다 치진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달이는 그렇게 우리 집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져버렸다. 오랜만에 엄마랑 나랑 일본으로 단둘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 며칠씩이나 달이를 혼자 두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걱정은 됐지만 고양이는 독립심도 강하고 배변도 잘 가리고 밥도 혼자 잘 챙겨먹으니까 아마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을 나섰다. 큰 짐을 싸느라 분주한 우리를 보고 달이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여행 짐 싸기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들고 나가려는 우리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달이의 울음소리는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 울음을 무시하고 엄마와 나는 여행을 떠났다. 일본에서 달이 걱정이 났지만 엄마는 괜찮을 것이라 했다. 아마 엄마도 괜찮다고 믿고 싶었을 뿐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박 3일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들려야 할 울음소리가, 있어야 할 온기가, 있어야 할 달이가 집안에 없었다. 처음엔 어딘가에 꼭꼭 숨어있어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달이는 쇼파 밑에도 침대 밑에도 캣타워 위에도 없었다. 그냥 우리 집이라는 공간에 달이가 없었다. 당연히 엄마와 나는 달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계단을 일일이 돌아다녀보기도 하고 옆집에 초인종을 눌러가며 혹시 고양이가 복도를 지나다니지 않았냐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다. 2박3일 떠나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정말이 지구 위에 떠있는 달이 사라진 듯이 심각하게 울었다. 달이 사라져 지구가 망할 것 같이 울었다. 지구가 나라면 달은 정말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 달이었다. 달이가 사라진 적막함에 목이 메여 눈물만 뚝뚝 흘렸다. 더 이상 저녁에 시끄럽게 울던 고양이가 이곳에 없었고 오묘한 색의 눈으로 바깥을 응시하던 고양이가 이곳에 없었다. 밖을 바라봤더니 네온사인에 지지 않고 항상 떠있던 하늘에 달도 있던 곳에 없었다. 어쩌면 2개의 달은 서로 손을 잡고 엄마랑 내가 그랬듯이 여행을 떠났던 것이 아닐까? 우리 달이는 집에 혼자 있던 적막함에 대해 달에게 떠들 것이고 하늘의 달은 은은한 빛을 내며 세상 빛에 사라진 별들의 적막함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다시 눈물이 났다. 달이는 우리가 갔듯이 여행을 떠났다. 적막함에 여행을 떠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의미 없다 여긴 그 울음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줄걸, 그 이야기는 어쩌면 ‘난 오늘 엄청 심심했어 그래도 여러 가지 보면서 참았고 자면서 참았지 그러니까 내일은 나랑 같이 있자’ 그런 신조였을지도 모른다. 아, 내 고양이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적막한 세상에 혼자 둔 것이구나, 그럼에도 적막함과 싸웠구나, 그러다 지쳐 결국 여행을 떠났구나, 다시 울었다. 정말 목 놓아 울었다. 엄마는 그 다음날 달이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다고 했다. 동물도 신고를 하면 찾아주는 건가, 신기했다. 달이를 찾을 수 있을까, 달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보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고 있을까,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했다.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정말 하루 종일 아무데도 안가고 옆에 붙어있을 태니까 그저 얼른 먼 여행에서 돌아와 달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달, 달 무슨 달 달이 같이 예쁜 달 어디어디 떴나...
그저 목이 뻐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대구동평초등학교 4학년 이해연

<달>

며칠 전 슈퍼 갔다 오는 길
엄마가 “저것 좀 봐!”

새가 하늘 위 “전깃줄 말이야?”
“아니, 도 말이야”
한 걸음 걸으니 레,
또 한 걸음 미,
또 한 걸음 파,
또 한 걸음 솔,
마지막 한 걸음 라!

“엄마, 이걸 달이
불러주는 노래야 “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초등부 산문

수상자 : 명륜초등학교 6학년 이유진

<달>

한 편의 수채화 같이 맑디맑은 어둠속에 홀로 떠 외로워 보이는 달, 하지만 달에는 토끼들이 매일매일 떡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여기 떡 반죽 10개만 더!”

“알겠어. 무슨 맛으로?”

“오늘은 쭈욱 넣은 반죽으로!”

그렇게 토끼들이 열심히 찧고 만든 떡은 예쁜 보자기로 포장 되어서 1년에 2번, 추석과 설날에 지구로 내려와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달해 줍니다. 사람들은 즐거워 하며 토끼들에게 당근을 줍니다. 토끼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달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토끼들이 사는 달은 당근이 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과 토끼들의 떡 배달은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번 추석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1년에 1번 있는 추석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 이라고 부르는 명절 중 하나입니다. 친척집이나 고향에 가서 밤새 이야기를 하고 송편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점점 대화가 줄게 되었습니다. 결국, 추석에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물론, 토끼들한테도 떡 배달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에 있는 토끼 왕국 안에서 돈으로 쓰는 당근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토끼들이 사용하는 물건의 값은 미친 듯이 치솟았고, 밥을 먹는 때보다 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토끼 왕국의 국왕은 지구에 특별히 특파원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토끼들이 없자 지구에 가는 토끼한테는 상을 준다는 공고를 써 붙였습니다. 그때 토끼 ‘미르’ 는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위에서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미르의 생각은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토끼들은 다 굶어죽게 돼요.” 라고 말해 아무도 그 뜻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르는 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구로 간 미르는 서울 시내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국왕이 준 쪽지에 쓰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르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 ..,”

‘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어, 우리집에 떡 시킨 적 없는데?”

“나, 나는 저~ 기 달에서 왔어.”

“진짜?”

그래서 미르는 어찌어찌 해서 그 여자아이한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달에서 온 미르라고 해.”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그래, 왜 왔니?”

“지구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추석을 지내지 않고 있고, 우리들의 떡을 시키지 않아 지금 많은 토끼들이 굶고 있어.”

“진짜? 그냥 당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잘 말해 볼게. 아, 참! 내 이름은 ‘지연’ 이야.”

그 말을 마치자마자 지연이는 다람쥐처럼 쭉르르 밖으로 뛰어나가서 친구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그렇게 많이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래서 미르는 다시 한 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토끼들에게 떡을 주문하고 당근을 주었습니다. 물론, 추석도 다시 지내게 되었고요.

드디어 미르가 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르가 우주선에 타고, ‘지금 가면 지연이가 속상해 할 텐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지연이가 달려와 미르에게 선물을 주고는,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한 후 다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르는 달로 돌아가 지구를 보며, “나중에 다시 지구로 돌아갈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중등부 시

수상자 : 상지여자중학교 3학년 황윤

<삭>

어렸을 적
달님은 나의 것 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부끄러운 일을 겪은 후에도
항상 계시기에

위로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들킨듯하여 했던 원망마저도
제 감정들을 모두 받아주시기에

저 높은 하늘에 나의 달님이 계신다
자랑을 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달님의 위로는 달무리라 하는 것이고
달님의 미소는 초승이라 부른다는 것,
달님은 저만의 달님이 아니시라는 것도요

이걸 모두 알면서도
달님을 마주하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검기만 한 하늘에
그 뒤에 계실 달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달님
저의 모든 순간 함께해주신 달님은
달님 뿐이신걸요

곧 다시 마주 뵈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히 웃고 있겠습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곧 다시 마주하게 되면
환히 비춰주시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중등부 산문

수상자 : 황금중학교 2학년 김지연

<어느 작은 여행가의 달나라 여행기>

나는 여행가이다. 옛말로 하면 나그네 같은 거? 하하, 나는 일본 도쿄에 가서 라멘도 먹어보고, 중국에 가서 전통 자장면도 먹어보고,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마카롱도 맛보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여행가냐고? 그래, 그래 완벽한 여행가는 아니다. 난 사실 겨우 중학교 1학년나이, 14살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난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만, 남들보다 5배는 더 빨리 가는 나만의 시계 덕에 학교는 다녀보지 못했다. 덕분에 집,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나는 병원에서 “여행을 가도 좋다.” 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전국방방곳곳, 더 나아가 해외까지 부모님과 갈 수 있었다. 나는 꼭 크면 여행가가 될 거다. 처음에 내가 여행가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 정도면 나도 여행가가 되기에 충분한 이력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책에서 봤는데 자주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나빠져서 병실에 갇혀있는 꼴이지만, 난 꼭 이 병실을 나와 여행가가 될 것이다.

“아빠가 책 사왔지!” 아빠다!

“무슨 책인데요?”

“여행 책, ‘어린왕자’ 나의 페이보릿 책이기도 하지.” 크크, 페이보릿이라니 우리 아빠, 항상 활기차다. 그래서 가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아빠가 좋다.

아빠가 침대 옆에 두고 간 ‘어린왕자’ 를 꺼내들었다. 어린왕자는 진짜 여행가처럼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지구에 떨어진 거라고 했다. 술주정뱅이 아저씨도 만나고 하루가 너무 빨라 등에 불을 켜고 끄는 것만 반복하는 사람도 만났다고 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 어찌면 난 전생에 그별에서 태어났었을 지도, “아들,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책을 읽다가 잔거야? 안자던 늦잠까지 자고,”

“책 재밌지? 역시 내 초이스는 아주 탁월했지.” 아빠랑 엄마다. 나는 가족이 있어 좋다. 어린왕자의 혼자 떠나 직접 만나고 느낀 여행도 좋지만, 웬지 그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자기 전, 나는 또 ‘어린왕자’ 를 꺼내 들었다. 보자... 어디까지 읽었더라? 아, 여기다. 어린왕자는 여우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여우는 자신이 길들어지게 되면, 어린왕자가 올 시간의 몇 시간 전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했다. 여우의 이야기를 모조리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좋아한다’ 라는 감정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있다. 몇 개월 전 옆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의 손녀 인데, 그 아이는 항상 양 갈래로 머리를 땀고 왔었다. 와서는 재잘대어 할머니 곁에 있다가 저녁 6시쯤에 돌아갔다. 그러다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를 해줬었는데 눈동자가 얼마나 맑은지... 난 그 아이가 오는 날을 매일 기다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그 아이 나에게 딸기 맛 사탕을 주고 갔다. 그 딸기 맛 사탕은 아직도 남아있다. 병실 서랍장 둘째칸에, 지금이 아니면 먹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에 사탕을 꺼내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입 안 가득, 딸기향이 퍼졌다. 음... 사탕은 곧 입안에 은은하게 도는 단맛을 남기고 사라졌다. 차마 봉지까지 버릴 수가 없어 다시 원래 자리에 접어 넣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양치하고 잔 거 맞아?” 아침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날 반겼다.

“음... 아마도”

“으이구, 양치는 내가 빼먹지 말랬지?”

“아빠는?”

“의사선생님이 부르셔서, 가 봐. 지금쯤 나왔을 거야.”

나는 내 전담 의사선생님의 진료실로 향했다. 아빠한테 ‘어린왕자’ 이야기 해 드려야지. 들뜬 걸음으로 향하는데... “송구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무슨 소리일까, 설마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그 순간 아빠가 나왔다. 아...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는 날 보지 못하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빨개진 귀가 아빠의 눈물을 예상하게 해 줬다. 난 병실로 향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등 돌리고 누워있는 날 걱정스레 바라보던 엄마는 내 등을 두어 번 쓸어내리다 가셨다. 나는 책을 읽지도, 더 늙었을 얼굴이 싫어 거울을 보지도 않았다. 며칠간 주욱 계속 그러다 다시 밝고 활기찬 아빠의 모습에 난 돌아왔다. 예전의 나로, 여전히 거울과 책을 읽지 않는 건 그대로 였지만.

“여행가자. 우리”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바리바리 가방을 싸 오셔서 말했다. 의사쌤이 허락을 내리신 걸까. 나아진 걸까, 모르겠지만 여행이라니 기분이 좋아져 양쪽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차를 탔다. 자꾸 산골로 들어가다 한적한 그리고 넓은 야외에 텐트를 치고 돛자리를 폈다. 그리고는 아빠와 나란히 누웠다. 산골로 한참을 이동했기 때문인가 벌써 별이 빼곡히 까만 하늘에 수를 놓았다. 언제 들고 온 건지 아빠가 옆에서 어린왕자 이야기를 마저 해 주셨다. 어린왕자는 다시 B612별로 떠났다고 했다. 밤하늘 저 멀리 B612별은 어디에 있을까.

“너, 여행가 되면 달도 가 보고 싶다고 했지? 어린왕자 잘 살고 있나 B612별도 가 봐. 까칠한 장미도 만나보고, 알겠지?” 진지한 아빠의 모습은 오랜만에 본다. 달 여행, 내 평생 꿈이었는데...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응...” 짧게 아빠에게 대답을 했다. 스르르 별빛달빛의 자장가 소리 때문인지 자꾸 감기는 눈을 잠시 편안히 감고서,

“아빠, 내가 꼭 내가 꼭 달나라 갔다가 책 쓰게 되면 우리 아빠는 철부지였다.” 하고 적어줄게.

“뭐? 철부지? 아니거든!” 아빠의 진심인 듯한 외침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내...

“어? 너 어린왕자 아니야?”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나 달나라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

“달나라? 재밌는 건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떡방아나 찧고 있는 토끼 두 마리 밖에 없어. 그냥 내별에 가서 놀자. 바오바브나무도 좀 뽑아주고... 내가 우리 양이랑 장미 보여줄게!”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우송고등학교 2학년 최맑은샘

<달>

창가로 불시착한 달을 견뎌야하는 밤이 있어 우리가 나뉘은 오랜 불면은 이런 식이야 천장에 붙여놓은 야광 별들이 서서히 빛을 잃으면 나는 어제의 생일파티를 생각해 두 손으로 받아낸 초콜릿을 전부 먹고 싶었지

너는 명료한 어른들의 연애를 하자고하고 난 밤새 블라인드 사이의 줄무늬만을 세어나가는 날들이야 흔들리는 창문 너머의 반쪽짜리 달이, 남은 반쪽 얼굴로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 귤가에 메아리치는 것이 밤의 노래라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내일은 달빛을 엮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줘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눈물이고 싶어 가끔씩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시시한 한낮에는 유년의 습성을 잊지 못하고 땅따먹기를 하고 싶지만, 네겐 말하지 않을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오늘 밤에도

달이 나를 내려다 본다면, 나는 기도를 해야 할까 꿈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솜사탕을 먹었고 사실 불시착한 것은 달이 아니라 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성년의 아침을 맞기 전에 네게 달려가고야 마는, 미성년의 나, 받아줘 네게 줄 보름달이야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우수상 - 원주시장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구현고등학교 2학년 구현정

<달 여행>

우리 집에 제대로 된 가구라곤 침대 하나뿐이다. 그마저도 몇 번 수리를 본 것이었다. 전부 아르바이트로 번 내 돈을 쏟아 부었다. 집안일에는 죽어라 관심 없는 아빠는 하루가 멀다하고 집안에 여자를 들였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어언 3년이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나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난 방문을 꽁 닫고 침대와 바닥 사이 살짝 띄워진 공간에 몸을 우겨넣는다.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크다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협소함이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오롯이 혼자서 멍하니 어둠을 바라볼 장소가 필요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빠와 웬 여자의 웃음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안방 문이 비밀스럽게 열리는 소리, 나는 모욕감에 사로잡혀 침대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침대 살을 하릴없이 쳐다보다 문득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침대에 손바닥을 갖다 대자 물컹하고 손바닥이 빨려 들어갔다. 빨려 들어가? 어디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빨려 들어간 손바닥을 바람이 간질였다. 시원한 공기가 땀살에 닿았다. 내친김에 머리까지 넣어봤다. 그때, 누군가가 엉덩이를 민 것처럼 쑥 들어가 버렸다. 땅바닥에 부딪혀서 아야, 짧은 신음을 뱉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다. 형형색색의 낙엽과 함께 날아다니는 수많은 나비가 날 반기고 있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내게 날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곁에 나비들이 맴돌았다. 나비들은 따듯했다. 엄마의 손길처럼, 그들은 군무라도 되는 듯 8자를 그리며 다리에 묻은 꽃분을 털어냈다. 하얀 가루가 꼭 아기 분 같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파랗고 큰 나비가 손가락에 살며시 앉았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아가야, 밤공기가 차니까 따뜻한 달로 가서 좀 쉬고 오자.”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각인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을 따라 걸었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보폭은 넓고 빨라졌다. 숨이 가쁘도록 뛰어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도 나지 않았다. 돌길을 지나자 꽃이 잔뜩 수놓아진 가로수길이 보였다. 꽃, 나무, 그리고 나비 외에는 아무것도 그 풍경에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과 조화롭게 때론 조화롭지 않게 통통 뛰어다녔다. 바람만이 내 몸을 스쳐가고 한 조각 새길 뿐이었다. 비밀스러운 여행이었다. 나비들은 얇은 날개를 힘껏 파닥이며 내 발걸음에 맞췄다. 몇 발자국 앞에는 큰 가로등과 분수가 놓여져 있었다. 거기서 쉬어가려는 찰나, 나비 떼가 이 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전등에 모여들었다. 전등의 뜨거운 빛을 이기지 못한 나비들이 낙엽과 한데 뒤섞여 분수대로 떨어졌다. 아아, 탄식을 내뿜었다. 달로 가자던 나비들이 고작 전등 빛에 타죽고 말았다. 뒤통수가 싸했다. 그래, 너희한테는 이것이 달이었던 것이다. 타죽을지언정 나비한테 전등은 달이었던 것이다. 아니, 달이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그대로 침대 밑이었다. 깜박 잠이든 모양이었다. 비밀스러운 여행은 끝났다. 나는 어기적거리며 침대 밑에서 나왔다. 시계를 보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나는 급하게 후드 티와 레깅스를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밤 골목에 어수룩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이 띄엄띄엄 아른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거렸다. 타닥타닥, 나방 한 마리가 가로등 안에 갇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후드를 깊게 뒤집어쓰고 길을 나섰다. 비밀스러운 여행은 끝이 났을까?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시흥은행초등학교 5학년 이어진

<달 떡>

까만 도화지 위에
둥근 달 떡이 덩그러니 있다

꿀꺽꿀꺽
모두 침 삼키며 먹어보려 하지만
달을락 말락 잡히지 않는다

장난꾸러기 달떡은 모두를 약 올리며 훌쩍해지다가
작은 불가사리가 되어
까만 바다를 헤엄쳐 다닌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입면초등학교 5학년 강승우

<달>

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화기

바다를 감동이
밀려오게 만드는 책

곡식이 쉬어가는
편안한 침대

밤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등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입면초등학교 4학년 강창우

<달>

숙제를 많이
내서 빠져서
보름달이 돼

받아쓰기 모두다
맞아서 웃어서
초승달이 돼

엄마아빠 일 가셔서
놀아줄 사람이 없어
너무 심심해서
반달이 돼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산문

수상자 : 서울연가초등학교 6학년 박진우

<달>

“미국의 펜 대통령은 2100년까지 달에 기지를 완성하겠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공약이 꽤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과학 강국인 미국이 과연 이 일을 해낼지 궁금합니다. 기자, 지금 미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미국 NASA의 관제센터입니다. 2010년까지는 15년이 남았는데요, 한 번 달까지 건 총책임자 라스 브라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펜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 같습니까?”

“네? 아, 대통령님의... 그, 공약 말인가요? 2100년까지 그 기지를 완성하겠다는 공약 말이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벌써 재료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이지요?”

“그건 모릅니다.”

베니는 TV를 꺼버렸다. 브라운은 당황했다. 베니는 브라운의 취재가 못마땅한 듯했다.

“왜? 잘하지 않았어? 초반에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아뇨, 안 괜찮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이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요, NASA가 얼마나 명칭해 보이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데?”

“아직 계산을 안 해봤다고 말했어야죠. 전 이만 가 볼게요. 기자회견이 또 있어서요. 그제 제 직업이니까요.”

베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녀는NASA의 기자였다. 기자들에게 NASA가 하고 있는 일 등을 설명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학의 ‘ㄱ’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끔 곤란하긴 했다.

브라운은 취재 일은 잊기로 했다. 당장 급한 일은 15일 후에 있을 로켓 발사였다. 한국인 과학자 2명과 미국인 과학자 1명이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가서 달 기지의 기초공사를 할 것이었다. 공사기간은 2달로 예정되어 있었다. NASA는 화성에도 인류를 두 번이나 보냈다. 이번엔 고작 달인데 뭐 어려울 것 있겠는가? 브라운은 JPL(제트추진연구소)로 곧장 갔다. 로켓은 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마 시험 중일 텐데 로켓 검사를 도와줘야 했다.

- 15일 후 -

이제 1분 후면 로켓이 발사된다. 지금까지 마흔 번이 넘는 로켓 발사를 했지만, 역시 조마조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그 마흔 번 중에 10번 정도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브라운은 관제센터에서 로켓 발사 내내 엔지니어들과 있어야 했다.

“로켓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10, 9, 8, 7... 3, 2, 1. 발사!”

쿠르르,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로켓이 발사되었다. 이전 것 보다 작고, 빠르고, 안정감 있게 설계되었다. 발사가 좋았다. 로켓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로켓이 흔들리면 로켓이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5분 후 NASA 전체에 환호성이 터졌다.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3시간 후 또 다시 환호성이 터졌다. 이번엔 우주선이 달에 잘 착륙했기 때문이었다.

- 달에서 -

이곳은 달이다. 몇 십 억년 동안 지구의 자전축을 유지시켜주며 대기와 움직이는 맨틀이 없어서 한 번도 얼굴이 바뀌지 않는 그래서 불변의 상징이기도한 ‘달’이다.

아폴로 11호가 착륙했던 ‘고요의 바다’에 새로운 우주선 1개가 착륙했다. 달기지의 기초공사를 위해 착륙한 우주선이었다. 우주선에서는 3명의 과학자만 내렸다. 한국인 2명, 미국인 1명 이었다. 한국인 2명은 김승천 박사와 안용석 박사였다. 미국인 1명은 여자 박사로 돌로리스 몬트로즈였다.

셋은 셋이 두 달 동안 생활할 거주용 막사를 펼쳤다. 100제곱미터짜리 막사로 3~4달 정도 쓰면 기능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 기지는 막사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고 튼튼해야 한다.

그들은 비좁은 우주선에서 3시간이나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날은 쉬기만 했다.

- 이틀째 날 -

“일어나, 김박사 어서, 나보다 일찍 잔 주제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일어날게.”

안박사는 이불을 밀어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몬트로즈 박사도 일어났다.

그들은 우주선 화물칸에서 착암기와 몇 개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지지대를 가져왔다. 그들이 오늘 할 일은 땅을 파서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물론 앞으로 열흘 동안 이일만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착암기로 땅을 조금 판 뒤에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묻었다. 김박사가 계산한 결과, 다이너마이트는 15개가 필요했다.

그들은 1미터 정도 아래에 다이너마이트를 묻었다. 그리고 500미터 정도 뒤로 간 다음, 스위치를 눌렀다. 1초가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다이너마이트는 ‘핑’ 하고 터졌다. 그들은 가까이 가서 지지대를 가지고 구덩이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구덩이가 깊게 파여졌다.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너무 컸던 것일까? 좀 더 자세히 보니 옆으로 동굴 같은 게 뚫려져 있었다. 그렇다.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는 그렇게 큰 구멍을 뚫지 않았지만 다이너마이트가 뚫은 구멍 아래에 동굴이 원래 자리하고 있었고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로 인해 동굴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것이었다.

셋은 동굴사진을 몇 번 찍은 후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동굴은 굉장히 넓었다. 하지만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몬트로즈 박사는 이상한 울림을 느꼈다. 셋 모두 벽에 손을 올려놓아보았다. 그 울림은 물소리였다! 달에 물이 있었다니! 그들은 진동을 측정하는 장치로 물소리가 들린다는 증거를 남기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때였다. 이상한 문이 나타났다. 확실히 인공적인 문이었다.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엄청난 세기의 소용돌이가 일더니 문이 열렸다. 그들이 들어가자 문은 재빨리 닫혔다.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 웬지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 문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어떤 원리인지 정말 궁금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안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은 공기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계속 걷다가 물을 발견했다. 달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바로 셋의 눈앞에 있는 이 기계가 달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그림이었다. 달은 달의 중력으로 지구의 자전축을 잡아줌으로써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우연이 너무나 큰 우연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달은 누군가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준 것이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챙겼다. 그런데 뭔가가 눈에 띄었다. 기계가 그림에 보이는 것 보다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셋은 기계를 잘 살펴보았다. 그들은 기계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 2달 후 -

그들은 이제 지구로 돌아가고 있다. 셋은 2달 동안 기계를 간신히 고쳐내었고 기계를 고쳐놓았다는 것을 암시한 그림을 그려놓았다. 비록 기지는 짓지 못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그 기계와 달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시

수상자 : 경기광주중학교 2학년 고태양

<보름달 상자>

어둠을 깨우는 별들
태양은 지쳐 잠에 든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지
15년이나 되었지만
어둠에 지쳐
그만,
내 마음 속 한편의 창고를 열어 보았다

창고 구석에 자리 잡은
먼지 쌓인 상자 하나
열 기대에 부풀지만
이내 다시 시무룩해지고 만다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이니?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 그렇게 텅 빈 눈빛이니?
하고 다시 물어본다면
조금은 사실대로
상자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아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
사실 모르고 싶은 상자이다
열고 싶지 않은 상자이다
열면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간신히 돌려놓은 눈빛이 변할 것 같아서
열고 싶으면서도
열 수가 없다

언젠가 그렇게 말해버리고
속 시원히 울고 나면,
상자를 열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상자 속 근심, 걱정의 보름달이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기울기 시작하고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긴 밤을 깨우는 태양
별들은 잠에 든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지
1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용기의 빛에 끌린 나는
내 마음 속 한편의 창고를 닫고 나왔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시

수상자 : 진관중학교 2학년 최정호

<달>

있사귀에 갖가지 색깔로
염색하는 가을 밤
그리고 그 장면을 위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보름달이 있다

나무들의 염색이 골고루 되도록
잘못 칠해지지 않도록
환히 비추어주는 너의 미소

난 그런 너의 미소를 볼 때면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너의 미소로만 가득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난 지금도 어디선가
너의 미소가 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한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산문

수상자 : 그레이스기독교 2학년 이정현

<달은 지구가 될 수 없다>

“좋아, 시간은 충분하군.”

현재 나는 지금 회의장 문 앞에 있다. 현재 시각은 8시 30분, 20분 뒤에는 각 나라의 제1 인자가 모여 회담을 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일단 지구로 조만간 소행성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인공위성 ‘혼천의’가 파악했고 만일 그 때에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지구의 땅의 80%, 많게는 90%까지도 황폐화 되겠지. 그것에 대비하고자 달 기지를 만들어 그곳에 모든 지식을 전송하는 거야. 그리고 충돌 후에 돌려보내는 거지. 하지만 최소 50년 내로 소행성이 충돌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일찍 온다면...!”

“건설 중인 달 기지에 소행성이 박힐 수도 있겠지.”

나는 갑자기 뒤에서 들린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내 뒤에는 내 5년 지기 동료인 정만월이 있었다.

“놀랐잖아. 회의 때 널 거 연습중인데.”

“반대 의견도 생각을 해줘야지. 어때 잘 돼가?”

“그럭저럭 돼가기는 하는데 미국이 동의해 줄지 걱정이야.”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지?”

“8시 45분”

“오 이런, 잘못하면 늦겠는걸. 먼저 갈게. 회의 잘해.”

“너야말로”

말을 마치고 정만월은 가던 길로 뛰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제 회의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회의장 문을 힘차게 열었다.

안쪽에는 미리 온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대표가 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회의장의 중앙으로 갔다. 내가 자리에 앉자,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다.

“얼마나 기다리게 할 겁니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회의를 시작하죠.”

나는 짜증이 섞인 듯한 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아직 오지 않은 국가도 많으니 천천히 기다립시다.”

미국 대표는 이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다. 그 뒤로 10분 정도 뒤에야 각 나라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영사기를 켰다. 화면에는 소행성 하나와 우리나라가 발사에 성공한 탐사선 ‘혼천의’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2020년에 발사하여 10년 만에 카이피벨트(내왕성의 궤도 바깥에 있는 소행성대로, 현재 외소행성인 명왕성과 카론, 에리스가 있다.)에 도착한 탐사선 ‘혼천의’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행성 104725가 50년 이내로 이곳, 제주도 상공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저장해 두고, 소행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성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그것으로 지구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에 무슨 방법으로 지식을 저장할 것이죠?”

독일 대표가 질문을 하였다.

“그것은 다음 그림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그림을 넘겼다. 그러자 달 기지의 상상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렇게 달 기지를 건설하여 이곳(내가 짙은 곳)에 모든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저장해 놓고 50명의 사람들이 생활하며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50년 내로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건설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게 만들 겁니까?” 중국 대표의 말이었다. 제발 질문을 하나씩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일단 수많은 로봇을 보내어 건축하게 할 것이고, 빠리는 20년 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만들고 산소공급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공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갑자기 미국 대표가 일어났다. 말이 잘린 것이 굉장히 화가 났지만 시간을 초과한 것이 맞으므로 나는 그에게 자리를 내 주었다. 그는 신료를 주어 화면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 생각은 각 나라의 핵무기들을 소행성 격추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핵무기를 없애 평화를 도모하고, 소행성을 막기도 하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서는 소행성의 격추 후 파편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이 달 방어 전략입니다. 달에서 수많은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여 소행성을 격추한 뒤, 그 파편들을 달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운석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만일 달이 파편을 막지 못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100만 번시도 시 1번꼴로 실패합니다. 거의 성공한다고 보아야지요.”

“만일 그 100만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그 날이 지구의 종말일인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중국대표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불확실한 확률에 지구를 포기 하겠다 이겁니까?”

그 말로 인해 미국 대표는 당황한 듯 보인다. 그는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그건 아닙니다. 확실히 달 방어 전략은 성공합니다. 다만 달을 포기할 뿐이지요. 그리고 방금 한국의 의견은 지구를 아예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나는 순간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확실히 내 의견은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 다행히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 없이 오로지 일본 대표가 질문을 했다.

“달을 포기하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이 거의 없어집니다만, 그래도 됩니까?”

“달 방어 전략은 달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달에 조금의 충격을 주는 것뿐입니다. 별다른 것은...”

“시간이 다 됐군요. 일단 1일차 회의는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개최국이자, 제안국 이던 중국대표가 말을 끊었다. 그러자 설명 중이던 미국대표가 회의장을 나갔다. 그 후에 다른 나라대표가 모두 나가자 나도 나가려 했다. 그런데 또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다른 미국대표(개최지인 나라와 미국, 중국은 대표를 두 명씩 보냈다.)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 했다. 나는 그를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 명함에는 FBI에 X표시가 되어 있었다.

“설마...!”

“CIA네, 미국대표로 가장하고 들어왔지, 자네, 미항공우주국(NASA)에 들어올 생각 없나?” 라는 갑작스런 스카웃 제안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어... 음... 일단 생각 좀 해보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려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한 가지만 말해두지 달은 절대로 지구를 대신할 수 없다네.”

나는 그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는 방을 나왔다. 며칠 후 내 의견은 묵살되었고 달에 남은 단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달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달 방어’는 실패했다.

13분의 1의 조각이 부서져 지구에 충돌하여 지구 토지의 90%가 수장되었고 지구의 모든 문명은 부서졌다. 그것으로 나는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알게 되었다. 모든 문명은 달에 저장해도 절대로 달은 지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산문

수상자 : 충암중학교 3학년 정소원

<꿈의 비행>

- 1 -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허공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찬란한 빛과도 같은 비행을 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이 비행을 하며 보고 느낀 것을 말해주며 내가 하루 빨리 그 무엇보다 자유로운 날개를 펼쳐 흘날리는 벚꽃보다 아름다운 비행을 하길 원하셨고 나 역시 빨리 푸르게 칠해진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난 비행을 하지 못했다. 난 자주 나와서 비행 연습을 했고 아버지와 형제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같이 나와 주었지만 몇 년 쯤 성공하지 못하자 지쳐서 나의 비행 연습을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였고, 나도 점점 몸에 많은 상처가 자리를 잡고 나는 아무리해도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안 깊은 곳에 새드 영화보다 더 슬픈 감정이 되어 올랐다.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노력들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했다.

- 2 -

특훈을 시작한지 2주가 조금 넘게 되자 드디어 나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 그 사실에 신이 나서 며칠을 쉴틈 없이 날아다녔고, 날아다니며 아버지에게 애기로만 듣던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었다. 비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황홀한 것이었다. 마치 꿈으로만 듣던 유토피아를 꽃잎과 나비보다도 더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같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노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비행을 하는 중에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도 아닌 달빛과도 같은 빛을 내는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최면에 걸린 듯 그 여자아이에게로 다가가니 아이는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고,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빛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 3 -

내게 비행을 하고나서 무엇이 가장 인상 있었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여자아이라고 말하였다. 그 아이를 본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 아이의 미소만큼은 절대 잊혀 지지 않았다. 장미꽃보다 빨간 입술 옆에 입 꼬리가 호선을 그리듯 토끼보다 더 사랑스럽게 올라가고, 보조개가 동굴과도 같이 깊게 파이며, 구슬보다 큰 눈 아래 애꿎살이 보기 좋게 올라가던 그 아이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몇 주 동안 그 아이와 처음 만났던 장소도 가보고 예전보다 더 활발히 돌아다녔지만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오늘야말로 꼭 찾겠다는 강철보다 강한 집념을 가지고 처음 만났던 좁은 상가 쪽으로 날아가 보았지만 역시나 그 아이는 없었다. 상심하며 한 가게 지붕위에 앉았고 고개를 살짝 위로 올리는 순간 난 다시 빛을 찾았다. 오늘도 그 애와 같은 새까만 어둠이 하늘을 뒤덮었을 때였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 4 -

그 아이의 집을 발견하고는 그 아이와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그 아이와 만나는 동안 그 아이에 대해 거의 모든 파악을 끝마쳤다.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하였고, 이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꽤나 큰 것 같았지만 이 아이는 항상 빛을 잃지 않았다. 낮엔 따사로운 햇살처럼 보듬어주고 밤엔 달빛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 주었다. 나에게 행복을 준 아이에게 나도 금은보화 같은 보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슬피하며 아이의 눈물을 보듬어주는 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 옆에 더 많이 붙어 다니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고마워 아기새야”

어느 날 아이가 내게 해준 말이였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수천, 수만 번 넘게 내가 더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깊은 슬픔 속으로 밀어 넣었다.

- 5 -

나의 형님이 요즘 어디에 날아다니며 무엇을 하냐고 물었고 나는 꿈을 꾸듯이 아이의 얘기를 해주었지만 형님의 표정은 돌을 씹은 듯한 표정이였다.

“인간과 가깝게 지내지마”

“어째서요?”

“인간은 위험해. 그러니까 형님 말 들어.”

곰곰이 생각하던 형님이 나에게 건 낸 말은 충격적이었고 어째서냐고 물어보자 인간은 위험하다고 대답해 주었다. 형님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인간의 세상은 손톱만큼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님도 인간세계를 아버지만큼이나 많이 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형님의 말을 믿게 되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유난히 더 어두워서 그 아이의 집으로 날아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집조차 새까만 어둠으로 물들여져 있었다. 쥐보다도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거실로 나가자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본 순간 아이의 아버지를 공격했고 아이는 고양이에게 들킨 쥐보다도 놀라서 나를 잡아 내팽개쳤다. 덩달아 나도 놀라 아이를 보니 아이는 피가 나고 있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다. 그 때 아주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스쳐지나갔고 새하얀 도화지에 새까만 페인트 물감을 쏟아 부은 듯 급격히 어두워진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 6 -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어졌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가지 않았다. 아이에게 미움 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내 날카로운 부리로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나조차도 믿기지 않고 마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날 이후 내 몸이 안 좋아져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런 나를 알아주기라도 한 듯 내게 많은 얘기를 해주며 나를 위로해 주었고 형님은 나를 대신해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나는 거기서 깊은 위안을 얻었지만 한구석에선 계속 아이만을 그렸다. 그러던 중 큰형님은 어디론가 날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끌려 다니다 큰형님의 목적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지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목적지를 묻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큰형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큰형님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나는 아이를 보았고 아이도 나를 보았지만 나는 아이의 미소가 빛을 잃은 것을 깨닫고 아이를 향해 환하게 웃어줄 수 없었지만 아이는 애써 입 꼬리를 올려 보였는데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끝이 된 듯싶어 최대한 옛날 아이의 미소를 흉내내내지으며 괜찮다는 한마디를 건넸고 몸에 느껴지는 너의 슬픈 물방울과 꽃을 물어오는 큰형님을 눈에 담았고 검정색 커튼이 내 눈을 살포시 덮어주었다. 나랑 있는 동안 좋은 꿈을 여행한 것 같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다시 꿈을 여행한다면 그때는 네 옆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유경

<달의 자장가>

레코드판에 보름달을 끼워 넣은 밤
달이 자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가 대신
달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밤에만 멀어지던 엄마의 궤도를 찾습니다
매일 나를 다독이기 위해
달의 뒷면은 사실 철골이라는 비밀을
귓가에 속삭였죠
감쪽같은 비밀을 믿었던 일곱 살의 나는
무중력의 방랑자
한밤중에 들리는 문소리는
달의 자장가와는 불협화음이어서
나는 희미한 잠 위로 떠오릅니다
빛을 잃어 가는 천장의 야광별
별똥별의 마지막 비명에 소원을 빕니다

나에게 엄마의 인력이 부족해서
밀려날 수도 쓸려갈 수도 없습니다
혼자 고인 새벽,
몰래 들어오는 그녀의 발자국이
점점 초승달을 닮아 가서
닿지 않는 보름달을 레코드판에 올려둔 걸까요

오늘 밤 엄마가 사라질 것만 같아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습니다
레코드판의 흠은 나의 궤도
째깍째깍 느리게 돌아갑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

<낙엽의 여행지>

거리마다 들성들성한 단풍나무가
별경계 물들어 고개 숙인 얼굴들을
떠나보낸다
가벼워진 잔가지의 숨소리가
약한 바람에도 파르르 떨린다

예정에 없던 여행을 떠난 할머니
베개 위에 널브러진 머리카락이
길바닥에 쌓인 낙엽처럼 뒤척인다
말라비틀어진 단풍잎에서 파스 냄새가 난다
찢어진 이파리를 가린 반창고들

잎맥에 새겨진 길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왔고
온몸에 연결된 호스로 통하는 길은
아무것도 아닌 곳
초점을 잃어가는 눈동자가
길을 찾으려 흔들린다

온몸이 찌그러지도록 누군가를 끌어안아야 했던 삶은,
그래서 둥글게 말린 이름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물기 없는 얼굴들이 발에 채여 거리를 뒹군다
계획된 시간도 장소도 없는 여행객들이
까칠한 살결을 보도블럭에 비비고
마를수록 등이 굽어져가는 이파리가 여기,
아직 거리를 떠돌고 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정세안

<그늘로의 여행>

휴지로 덮어둔 금붕어를 꺼내는 밤
나무의 그림자를 파낸 자리에 묻어두고 오는 길이야
저곳은 나를 떠난 것들이 모여 사는 곳
물고기와 병아리 그리고 강아지의 울음도 그곳에 있지
흙이 묻은 돌 몇 개를 올려두었어
어둠이 쏟아져도
그늘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잖아
나무뿌리 속에 스며든 금붕어는
죽은 잎들의 잎맥을 갉아먹고 있을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아래,
이제는 그늘 속으로 헤엄쳐 사라지던 너를 생각하는 중이야

아가미를 조금씩 부풀리며
그늘의 수온을 받아들여야 하겠지
지난 가을 나무가 천천히 벗겨낸 껍질이 가라 앉아 있을 거야
네 몸에 새겨진 달빛의 비늘도 물결무늬를 드러낼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두렵다면
바람이 내던 소리를 빼금 거리겠니
그러면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 오랫동안 번질 거야
가장 맨 바닥에 피어난
연꽃에 누워 어둠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니

모두 여행을 떠나고 홀로 남은 방
언제쯤 나도 함께 따라가려나.
유리창에 비친 그늘 진 얼굴에
숨을 내뿜는 금붕어가 떠다녀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선희수

<여행>

어둠으로 잠식된 방
달의 진물이
방안에 흘러내릴 때면
나는 그곳에서
여행을 꿈꾸는 몽상가가 된다

눈을 감으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내가 무한히 팽창되는 느낌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끈다

나는
손톱 같은 반달에 앉아
별들을 낚시해 보기도 하고
우주의 한 축을 가르는
별뿔별을 낚아채보기도 한다

때로는
우주의 한 벽면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두고
태양이 내뿜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다

혹여나
식어버려 차갑게 굳어버린
운석이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서둘러 돌아왔을 때는
방은 이미 새벽공기에 뒤덮였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강린희

<달나라로>

“1106호 환자 요즘 통 안 먹어서 큰일이야 박간호사가 한 번 가봐.”

벌써 며칠째 밥을 안 먹는 할머니환자 때문에 요양병원 전체가 뒤집혔다. 밥뿐만이 아니라 과자, 사탕, 음료수까지 거부하니 점점 야위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은 피가 마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간호사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그 병실에 들어갈 차례였다. 다들 말은 안했지만 그 병실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나 또한 그랬기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밥을 안 먹는다고 던져버리면 어찌지. 괜히 내가 들어갔다가 안 먹었다고 자르면 어떡해. 뭘 드려야지 드실까? 걱정과 고민으로 아침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고 나는 준비한 떡을 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고민 끝에 엄마에게 전화하여 얻은 해답이었다. 나와 동생이 밥을 안 먹을 때면 쓰던 엄마의 비장의 무기, 달 토끼의 떡이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병실은 조용했다. 문을 닫고 뒤로 돌아 머리가 하얀 조그마한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나를 한번 스윽 보더니 말했다.

“언니 저 배 안 고파요. 밥 싫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목소리에도 힘이 없던 할머니는 역시나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도 없어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싫은 티를 낼 뿐이었다.

“아니예요 밥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완전 보물을 주워서 몰래 보려고 들어온 건데, 여기에 계셨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같이 보실래요?”

힘없던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관심 끌기에 성공한 것 같았다.

“이거예요 달 토끼의 떡!”

나는 치마 주머니에서 병원 앞에서 산 찹쌀떡을 비밀스럽게 꺼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달 토끼의 떡이요?”

“네! 달에 사는 토끼 아시죠? 그 토끼가 저한테 보낸 떡이에요. 달에서 직접 만든 떡이요!”

할머니는 힘겹게 나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에 떡을 올렸다.

“이걸 먹으면 피부도 그렇게 좋아지고 예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달 토끼랑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먹고 예뻐지라고 보낸 거예요.”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말했다.

“언니 저도 이거 주세요. 한 입만요. 제발요, 먹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는 함박웃음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 도도하게 말했다.

“아, 이 거 참 곤란하네. 달토끼씨가 나만 먹으라고 준건데. 뭐 저는 몇 개 더 있으니깐 이걸 할머니 드세요.”

내 허락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떡을 허겁지겁 먹었다. 중간 중간 소녀의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떡을 다 먹은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병실을 나왔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점심시간이 끝난 후 수간호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가 달을 좋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며 추가수당을 줄테니 할머니를 담당하라고 하셨다. 나는 기뻐해야할지 슬퍼해야할지 몰라 그냥 웃었다.

그 날 저녁 나는 석식을 들고 병실 앞에 서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다. 그러다 건너 편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초승달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는 다급하게 병실 문을 열었다.

“큰일 났어요. 달 토끼가, 달 토끼가...”

달 토끼라는 말에 할머니는 아까처럼 눈이 커졌다.

“달 토끼가 죽어가요!”

“왜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기 창문을 보세요. 달이 손톱의 반도, 아니 반의반도 안돼요. 달 토끼가 살 곳이 사라져가요!”

할머니는 거의 울 듯한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살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떡을 드셨으니까 도울 수 있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달 토끼 떡을 먹은 사람은 달 토끼를 도울 수 있고, 달나라 여행도 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달나라여행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마다 달이 커질 거예요. 그럼 달 토끼가 살 수 있어요!”

그 날부터 할머니는 밥을 꼬박꼬박 드셨다. 살도 붙었고 혈색도 많이 좋아지셨다. 무엇보다 항상 웃고 계셨다. 나에게 달 토끼의 근황을 묻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며칠 후 점심을 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건넸다.

“언니 저는요 살을 잔뜩 빼면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내 친구도 살이 많이 빠져서 달나라로 갔거든요.”

나는 살이 많이 빠진 할머니의 친구가 한 달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병실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진짜 밥 많이 먹어도 달나라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오히려 밥을 많이 먹어야지 달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뿔으며 밥을 드셨다. 달은 어느새 반이 조금 넘을 정도로 차올라 있었다.

어느새 달이 가득차기 직전의 날이 왔다. 내일이면 보름달이 뜰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다시 작아질 달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걱정이 한가득 이었다. 하지만 저녁밥을 드시는 할머니는 오늘 따라 더 들떠보였다.

“언니! 내일이면 보름달이 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달나라에 갈 수 있는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면 달 토끼들이 떡도 만들까요? 그거 먹고 싶은데...”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너무 좋아 실실 웃으셨다. 나는 달나라여행을 어떻게 가야하나 걱정뿐이었다. 다시 할머니가 밥을 안 드시면 어쩌나. 점심시간까지 보이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병실에도 없었다. 화장실에도 나는 불안감에 손톱을 뜯으며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걸터앉은 채 창문 밖을 내다보던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침대에 웬 떡이 올려져 있었다. 창문은 열려있었고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했다.

“달나라로!”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유정

<나방>

나는 위로 날아올랐다. 정신이 몽롱했다. 인간들에게 가로등이라 불리는 불빛에 또 홀리고 말았다.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을 가로등에 부딪친 후에야 나는 간신히 제정신을 붙들고 가로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제는 육십 번을 부딪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나가던 인간이 가로등을 발로 차며 고함치고 입에서 누런 물을 뱉어낸 덕분에 가로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급히 가로등을 뒤로 한 채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갯짓을 했다. 어느 정도 벗어나자 달에게 닿기 위해 힘차게 날아올랐으나 서서히 날갯짓이 느려졌다. 눈앞에서 흰 빛이 아른거렸다. 어쩔 수 없었다. 본능이었다.

태양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우리는 달빛이 전부였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때론 반딧불이의 쫓무니를 뒤쫓기도 하고 인간들이 들고 다니는 불빛을 따라다녔지. 어두운 세상에서 달빛보다 빛나는 것은 없었던단다. 반딧불이도, 등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달을 향해 날갯짓을 했다. 달에 닿기 위해 날갯짓을 한 수많은 동족 중 일부는 달에 닿았다. 달에 닿은 동족들은 뒤를 쫓는 또 다른 동족들을 위해 작은 노래를 불렀단다. 그래서 달에 가까워질수록 노래는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머니의 말씀과는 달랐다. 머리 위는 어둡고 그 위를 차지하는 달이 있었지만 내가 날아다니는 곳들은 전부 밝았다. 달이 아님은 알았으나 항상 흘러서 몸을 부딪치곤 했다. 많은 동족들은 아래로 내려가 밝은 불빛에 몸을 부딪쳤다. 어떤 동족은 그게 달의 대신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달을 찾지 않냐고 동족에게 화냈던 적이 있었다. 동족은 이렇게 말했다.

“달은 너무 멀리 있잖아. 저 위에 바로 이 앞에서 환하게 빛나는 불빛을 놔두고 닿을지도 모르는 달까지 왜 가야하는 건데?”

그 불빛은 가짜고 가까이 가도 동족들의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족은 시끄러워서 묻힌 거겠지, 라며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무시하고 몸을 눈앞의 불빛에 부딪쳤다. 나는 동족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닿고 싶으면 쟁취해야지 끝까지 부딪쳐야지. 진짜도 아닌 것에 부딪쳐 만족하는 걸까? 가야할 길이 아득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하는 곳은 저 달이 빛나는 곳이었다. 이 땅의 불빛이 아니었다.

어제보다는 높이 날아오른 것 같았다. 어제는 아파트의 머리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 휴식을 취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를 정리하는데 발소리가 들리다 멈췄다. 인간의 비명이 들려 화들짝 놀라 날갯짓을 했다. 비올 때와 비슷한 축축한 물방울들이 나를 적셨다. 비와 다른 점은 맞으면 맞을수록 몸이 둔해지고 정신이 흐려진다는 점이었다. 나는 다급히 날개를 움직여 창문 바깥으로 몸을 던졌다. 날갯짓이 빨라지지 않는다. 눈앞에 하얀 불빛이 있었다. 가서 몸을 들이박고 싶었다. 안 돼, 정신을 붙들고 위로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날갯짓을 했지만 바람이 갈라지지 않았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정신을 잃은 듯했다. 눈을 떴다. 내 주변은 달맞이꽃을 닮은 노란빛이 가득했다. 노란 불빛은 내 몸을 데웠다. 따듯했다. 날갯짓을 백 번도 천 번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가벼웠다. 가볍게 날갯짓을 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불빛만이 있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긴 어디인걸까? 기분이 노곤했다. 속삭이는 소리를 향해 날았다. 밝은 흰 빛도 시끄러운 소리도 인간도 없었다. 어디라도 언제든 머물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적셨다. 나는 날아올랐다. 달을 향해 날갯짓을 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유현지

<만월>

달은 아침부터 짝조름한 맛이 났다. 소금보다는 달짝지근했지만, 그렇다고 계속 입에 가져가고 싶은 맛은 아니었다. 나는 동그란 손거울 앞에서 달을 조각냈다. 흐릿한 눈썹, 쌍꺼풀 없이 양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 작고 넓적한 코, 색을 잃은 입술, 손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는 입에서 초승달 조각을 뱉어냈고 달도 딱 그만큼씩 얇아졌다. 나는 달에서 피가 나기 전에 얼른 입을 떨어트렸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피부에 자리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여드름자국 위로 물을 끼얹고 거품으로 문질렀다. 그러나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붙어있는 자국들을 봐야했고, 나는 또다시 얇아지려는 달을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달을 채울 시간이었다.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더라.

주변 사람들이 포대기에 싸서 꼬물거리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엄마는 그들의 말을 부정했지만, 엄마의 믿음이 무색하게도 나의 얼굴엔 점점 아빠의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제야 눈치를 챈 엄마는 내가 아빠의 코를 닮아가고 있을 즈음, 나에게 손을 뻗어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높아져라, 높아져라 중얼거리면서 내 코를 꼬집었고, 커져라, 커져라 중얼거리면서 내 눈을 아래위로 벌렸다. 내가 알싸한 코와 따가운 눈을 잡고 울먹거리면 엄마는 다 날 위해서라며 또 반듯해져라, 반듯해져라 중얼거리며 내 흰 다리를 반듯하게 묶어놓았다.

“사람에게 첫인상은 중요한 거야. 첫인상만 좋으면 일이든, 사랑이든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나는 엄마의 설교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다. 저릿한 다리는 어릴 적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작고 동그랗던 달이 내 입에서 톡톡톡 얇아지기 시작한 것은, 흉터자국 가득한 얼굴에 컨실러를 바르기 시작했다. 크게 뚫려있는 모공에 프라이머를 채워 넣고 그 위로 매끈한 피부표현을 위해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퍼발랐다. 또렷한 눈매를 위해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렌즈를 껴다. 어두운 새도우와 진한 분홍색 새도우를 눈 꼬리에 칠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정갈하게 눈썹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점막부터... ..,

거울 속 나는 점점 엄마가 원하는 얼굴이 되어갔다. 일이든, 사랑이든, 반은 먹고 들어가는 ‘첫인상’을 가진 얼굴이 만들어졌다. 나는 최대한 예쁜 각도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입술을 모으고 세 번, 눈웃음을 치며 네 번, 눈을 내리깔고 두 번, 나는 제일 잘나온 사진을 골라 보정을 하기 시작했다. 눈은 더 크게, 코는 높고 안정감 있게, 얼굴형은 달걀형으로,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얼굴에 달도 조금씩 차올랐다. 초승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상현으로, 내 사진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사이트에 올라갔다. 친구를 만들거나 자신의 반쪽을 찾는 사이트였다.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밑으로 댓글이 달렸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언니 예뻐요! 완전 여신ㅎㅎ

저랑 동갑이시네요~ 친구해요!

갈수록 예뻐지는군! 아주 인기 폭발이야~

달이 차오른다. 차오르고 있다. 나의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받은 멍혀들어갔다. 나는 부풀어 오르는 가슴에 자꾸만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다. 누르면 누를수록 쏟아지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곧 만월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만월이 될 수 없었다. 뭐가 예뻐ㅋㅋ 딱 봐도 화장발이네. 보정 대박 아예 딴 사람인거 아냐? 속눈썹 봐 깜박이면 태풍 불 듯 ㅋㅋ 나는 다급히 손거울을 들어올렸다. 속눈썹 끝이 떨어져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올리자 이번에는 쌍커플 테이프가 떨어졌다. 집게손가락으로 겨우 붙여놓았을 땐 아이라인이 번지고 그 뒤로 비비크림이 밀리고 새도우가 지워지고...

높아져라, 높아져라.

나는 중얼거렸다.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코를 꼬집었다. 알싸한 느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적갈색 새도우가 번진 눈물이 흘러내렸다.

커져라, 커져라.

눈을 아래위로 잡아 벌렸다. 속눈썹이 아예 떨어져 나갔고, 쌍커플 테이프는 아이라인과 엉겨 붙어 보기 흉한 모습을 보였다.

반듯해져라, 반듯해져라.

나는 화장품으로 얼룩덜룩해진 손으로 다리를 꺾꺾 눌렀다. 그럴 때마다 뻗뻗한 무릎에 얹혀져있는 손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둥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던 달이 흔들렸다. 조각나고 금이 갔다. 나는 서둘러 달을 입에 가져갔다. 짭조름한 맛이 입 안에 퍼졌다. 입은 다시 초승달을 뱉어냈고 달은 상현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초승달로 얹어져갔다. 맞은편에 놓여있는 손거울을 다시 집어 들었다. 괴상하게 번진 눈, 군데군데 흉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피부, 일그러진 입술, 얼굴이 한쪽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둥그랗던 얼굴이 상현달로, 반달로, 초승달로, 그 모습을 점점 잃어갔다. 입 꼬리만 남은 내가 말했다.

나는 만월이 될 수 없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장려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변자영

<여행>

선생님이 떠났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업이었는데 마지막 수업이었다는 문자가 선생님 대신 남았다.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서운해 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한 건 선생님이 남긴 답장 한 줄이었다.

“내 마지막 제자들, 서운하지만 난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한.”

선생님은 어머니와 남은 시간을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다. 딱딱한 문자 폰트 속에서 선생님의 애절함이 묻어나왔다. 그렇게 무성고 카리스마 넘치던 선생님의 속에도 여린 소녀가 울고 있음을 난 미처 알지 못했다. 눈물이 설새 없이 흘러나왔다. 멈추려 노력해도 선생님의 문자만 보면 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며 휴지를 건넸다. 나는 한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여린 소녀가 되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엄마가 나갈 채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에 두른 수건을 내리자 흥측한 수술자국이 드러났다. 수술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엄마의 가슴에 찍힌 낙인은 얼어질 줄을 몰랐다. 엄마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은 민머리에 모자를 눌러썼다.

엄마가 수술을 받은 뒤, 화장대 한편에는 가발이 놓이게 되었다. 엄마는 집 앞 슈퍼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아니면 항상 가발을 쓰고 다니곤 했다. 가발을 쓰면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엄마는 개의치 않았다.

엄마는 짜증이 늘었다. 아프고 부터인지 더는 생리대에 손을 대지 않게 된 날부터인지는 명확치 않았다. 엄마는 땀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고 동시에 추위를 심하게 타기도 했다.

하루는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엄마를 찾아 현관문을 열었지만 나를 반기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날 웬지 모를 설움에 나는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울며 엄마와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엄마도 날따라 울기 시작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 이해해줄 수 있지?”

엄마는 진정하고 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 엄마의 서랍에 쌓여있는 앞으로 10년은 복용해야 한다는 약이 떠올랐다. 전부 외면하고 싶었다. 엄마가 긴 여행에서 이제 간신히 고비 하나를 넘겼을 뿐이라는 걸, 언젠가 나 홀로 배낭을 메야 한다는 걸 잊고 싶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던 와중에 뜻밖에도 선생님의 부재가 나를 고개 들게 만들었다.

“여행을 떠나. 글 안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렴.”

내게 처음으로 소설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듣는 우리에게 여행을 가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내가 시작한 이 새로운 여행의 표지판이었다. 때로는 의자가 되어 주었고, 고난과 채찍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여행 속에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다. 그런 선생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건 새로운 여행의 지도였다. 나를 가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장 아끼는 단 한 사람과만 떠날 수 있는 여행이었다.

선생님이 남긴 문자 속에서 나는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소녀를 봤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무려 이 년 만에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동안 엄마가 오랫동안 차를 탈 수가 없어 갖은 핑계로 미뤄왔다. 할머니에게 엄마의 상처를 털어놓으면 되는데도 엄마는 끝까지 숨기려 했다.

엄마는 두껍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면을 썼다. 가슴에는 빵을 집어넣었고 마른 몸을 가리려 애썼다. 나는 화장대에 놓인 가발을 집어 들었다. 움츠러든 엄마의 뒷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가발을 매만진 뒤 엄마의 머리 위로 가져갔다. 어색한 가발에 모자를 덮으니 한결 나아 보였다.

선생님이 건넨 지도를 펼쳤다. 엄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여행에 발을 들이밀었다.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가 지금껏 내게 그래왔듯이 나는 엄마의 동행자가 될 것이다.

길 위에 나만 남을 때까지.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북촌초등학교 6학년 황지윤

<달같이 환한 너에게서>

달같이 환한 너에게서
달처럼 빛나는 너의 눈 속에서
달빛 받아 반짝이는 한줄기의 눈물이
달을 닮아 아름다운
너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하늘에서 달빛이 내려오듯 소리 없이
떨어진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시

수상자 : 산들자연학교 4학년 박진영

<달의 여행>

달도 여행을 떠난다
시간마다 달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가끔씩은 달이 너무 멀리 여행을 가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는
달 대신 해가 있다지만
가끔씩 달이 보인다
해와 달이 모두 보인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초등부 산문

수상자 : 서울태릉초등학교 5학년 강예진

<희망을 전하는 달>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하얀 달을 볼 수 있다. 난 예전부터 달토끼가 되고 싶어했다.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기도 하는 달을 볼 때마다 달에 가고 싶었다. 달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준다. 아주 먼 옛날에도...

옛날에 장씨가 살았다. 이 사람은 궁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장씨는 내시가 되려고 했지만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장 씨는 슬퍼했다. 장씨는 밤하늘에 걸린 달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찌지? 분명 속상해하실거야.”

장씨는 걱정이 되었다. 그때, 달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던 토끼 한 마리가 장씨를 보았다. 토끼는 장씨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말했다.

“장씨, 그런 일로 걱정하면 안 되요.”

장씨는 달토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달토끼가?”

“그렇소. 난 달토끼요.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말을 걸었지.”

장씨는 환한 웃음을 짓더니 이내 풀이 죽었다.

“난 아무것에도 필요가 없소. 그만 가 보시오.”

“아무것에도 필요가 없다니! 당신을 믿어보소.”

“나를 말인가?”

“그렇다네. 당신은 내가 보기에 훌륭한 인재네. 당신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네.”

그러자 장씨가 말했다.

“무엇으로 성공한단 말시오?”

“음... 당신은 내시보단 선비가 어울리네. 장원급제를 목표로 두고 과거시험을 보는게 어떤가?”

장씨가 고민을 해보더니 말했다.

“그럼 한 번 도전해보지. 고맙네.”

그 말에 토끼가 미소를 지었다.

“잘되길 빌지. 날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게나.” 어느덧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달토끼도 서서히 사라졌다.

장씨는 과거시험을 보았다. 이번엔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3년 뒤 장씨는 장원급제를 하였다. 장씨는 매일 밤, 환하게 빛나는 달 안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는 달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달토끼야, 고맙다.”

어느 날이었다. 장씨는 오랜만에 집에 갔다.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러나 옆집 오랜 벗은 좀 변해있었다. 장씨가 옆집의 오랜 벗을 찾은 곳은 바로 술집이었다. 오랜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벗은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며 노래를 중얼중얼 불렀다. 그러더니 장씨를 못 알아보고 욕을 해대더니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장씨의 오랜 벗인 노씨는 장씨에게 매달려 울었다.

“내가 친구 하나 못 챙기고... 너에게 폐만 끼쳤네. 미안하구려 후후...”

사실 노씨는 자신이 창피해서였다. 장씨는 도무지 어떻게 달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달이 뜨자마자 장씨는 노씨를 데리고 가 달토끼를 불렀다.

“어흥... 난 너를 잘 알지. 밤마다 술집에가 술을 계속 마시더니 똥아떨어지던 놈, 맞지?”

달토끼의 말에 노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도 뉘우치고 있소.”

“흠... 자네는 앞길이 턱~ 막혔구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장원급제는 식은 죽 먹기지.”

토끼의 말에 노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원급제라뇨? 전 이대로 막살렵니다요.”

그러자 토끼가 버럭버럭 소리쳤다.

“당신의 내면을 보시오! 대단한 집중력과 끈기!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거요.”

노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정말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니, 놀랍소. 내 꼭 장원급제를 하리라.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토끼여, 고맙소.”

“별말씀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럼 행운을 비마.”

달토끼는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떡방아를 찧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노씨는 진짜로 장원급제를 하였다. 노씨와 장씨는 그날 밤 서로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토끼여, 정말 고맙네.”

이 이야기에서처럼 달을 바라보면 정말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낮에는 해라면 밤에는 달이다. 만약 달이 없다면 이 세상의 밤은 캄캄해질 것이다. 달이 비추어줘서 우리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라도 우리들의 길을 볼 수 있다. 나도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아무길이 보이지 않아도 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듯이,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난 달을 보며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믿으니까.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길 경우가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힘든 일이 생겨서 당장에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을 한 번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그러면 환히 웃는 달토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환하게 빛나는 저 달처럼 우리도 언젠간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것이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시

수상자 : 봉원중학교 3학년 이주연

<소년>

달을 좋아하던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달을 보며 매번
'아이, 밝다, 밝아,' 하며
천진하게 웃었다

그 아이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아이는 나를 보며 한 번,
자신의 침대에서 보이는 달이
참 밝다고 했다

불을 다 꺼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방에
빛을 비추는 손톱 모양이
달인 줄 모를 정도로 밝더라

순간 그에게서 가득 차오른 달이 보였다
그는 달을 보며 다시
'아직도 밝구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중등부 산문

수상자 :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 남연주

<달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밤하늘은 무섭습니다. 요즈음 도시의 밤을 돌아다니면 번쩍번쩍 눈을 찌르르하게 하는 수많은 전광판은 우리에게 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에 봉우리가 가려진 산을 꼭 두 개만 넘으면 어둠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치의 앞길도 보이지 않는 그 밤하늘은 차갑고, 무섭고, 외롭고, 무언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밤길을 걷다보면 나만의 상상은 끝도 없이 펼쳐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몽롱한 기분에서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밤은 나를 엄습해옵니다.

하지만, 이 차갑고, 어둡고, 두렵기만 했던 밤하늘은 몇 달 전부터 나에게서는 추운 날 마시는 라면국물처럼 춥지만 따뜻한 포근하고도 그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외할머니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 기억도 나지 않을 그때가 아니라면, 나는 손을 잡아보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외할머니는 치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티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몰래 피해 다녔습니다. 나만 보면 자꾸만 우리 첫째 이모 이름을 부르면서 할머니 옆에 오라고 했으니깐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그 어린 마음이, 크고 나니까 어리석게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변해갔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비록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보듬어주셨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생일날은 미역국도 끓여주셨고 항상 외할머니 댁에만 가면 제가 하늘땅만큼이나 좋아하던 산딸기를 주시고는 했지요. 그때 먹었던 그 산딸기는 새콤하지만 달콤하기도 한 맛에 아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다. 사실 산딸기를 기억하기보다 할머니의 무한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따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년간 일 년에 딱 두 번씩 할머니 댁에 갔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한다면 집에 가지고 가라며 산딸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고기조차 아이스 박스에 꼭꼭 담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할머니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세월의 무게는 자꾸만 할머니의 등을 짓눌러 굽어만 갔습니다.

지금부터 꼭 열 달 전, 나는 영영 외할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출장이라며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이번 설날에는 외할머니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14살이나 돈 나인데 그조차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엄마 눈에는 아직도 내가 어린애로만 보이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에게 직접 여쭙어 볼 순 없었습니다. 한없이 나에게 기둥이 되어준 엄마가 이대로 울어버린다는 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울지 않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감당해낼 수 없는 슬픔임을 이미 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49세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엄마랑 외할머니댁 주변 밤길을 걸었습니다. 봄이라 하기에는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던 그 밤길은 추운 바람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니다. 봄도 아직 이 험한 산을 넘지는 못했나 싶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밤길을,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달을 보았습니다. 초승달,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만 보았습니다. 웃고 있으면서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춥지만 밤길을 걷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두웠고, 무서웠고, 캄캄하고 찬바람이 불던 그 밤길은 나에게 현실이 아닌 그 몽롱한 꿈과 현실 사이의 그어는 곁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몰래 눈에서 흐르는 따뜻한 액체를 쓰윽 닦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엄마도 울지도 모르니까요. 또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재채기를 두어 번 하면서 콧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말 없이 두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달은 보였습니다. 엄마, 꼭 저 초승달이 우리 외할머니 닮은 것 같아. 우리 할머니 등도 저렇게 굽었잖아. 할머니도 하늘나라에 가서 저렇게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치? 엄마 저기 봐! 초승달도 밝게 웃고 있잖아. 그래도 다행이다. 별들이 옆에 꼭 붙어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겠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산문

수상자 :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강정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가족들과 함께 관광지에 놀러가 평소에는 일상에 치여 하지 못했던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나에게 여행이라는 의미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에 사는 사촌형의 결혼식 때 외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나에게 여행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다.

우리 외갓집은 대가족이다. 우리 엄마는 2남4녀 중 막내인데, 외삼촌도 전부 결혼해서 그 손자에 손자까지 일 년에 두 번 꼴로 가족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이번에는 해병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의 결혼식이 있었다. 사고뭉치였던 사촌형의 결혼식으로 온 가족이 기뻐하던 도중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 구급차에 실려 가셨다는 것이다.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셔서 퇴원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먼저 갈 수 없지.” 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도 울고 있기만 하지는 말아라. 세상 여행 잘 끝내고 돌아가는 것이니 나를 위해 울어줄 가족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살았다는 뜻 아니냐” 라고 덧붙이셨다. 나는 충격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살아온 17년이 너무 짧아 할아버지의 80년이 녹아든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신도 그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에 놀러온 여행자라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여행의 의미와 많이 달랐다. 나에게 여행이란 그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내 어깨에 짊어졌던 짐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삶이란 그저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 내가 이제까지 힘들어서 싫다고 했던 학원이나 공부도 내가 이 세상에 여행 온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라는 게 내가 이번에 외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갖게 된 생각이다.

나는 요즘 나의 꿈을 찾아 여행하는 중이다. 글쓰기, 악기연주, 외국어 공부 같이 나에게 아직 세상은 넓고 해보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도 많다. 그 꿈들을 하나씩 찾고 이뤄가는 여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쏟아지는 소나기에 몸이 흠뻑 젖기도 하고 내리 쬐는 피약벌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의미도 해야 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변한다면 그건 나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이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나는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평생 세상구경 잘하다 간다.”

2016 박경리문학제 전국 청소년백일장 수상작

수상 : 매지상 - 토지문화재단상

부문 : 고등부 시

수상자 : 상명대 사범대 부속여고 2학년 이진주

<우주에게, 달이>

엄마, 알고 있어? 우주는 따뜻해
내가 달이었던 시절의 사진을 본 날
밤, 기억이 났거든

아주 아늑했지 내 첫 집이 그곳이라 행복했어
우주 바깥의 소리들도 재미있었지만,
우주가 들려주는 자장가가 그렇게도 인상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내가 유성이 되어,
이 곳에 떨어졌지 꺾음과 함께
무서워 우는 날 껴안고 더 크게 우는 여자를 보았는데,
엄마, 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뚱뚱해진 얼굴을 보고도 엄마는 날 알아볼 수 있겠어?

엄마, 알고 있지?
우주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니까
그 안의 달일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때의 작고 예쁜 달이 아니어서 미안해
우주에게, 달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딸이